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

김지은¹ · 조영란¹ · 이상한²

¹대구아동성폭력전담센터
²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접 수 : 2013년 7월 24일
수 정 : 2013년 8월 12일
게재승인 : 2013년 8월 23일

책임저자 : 이상한
(700-842)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80,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실
전화 : +82-53-420-4889
FAX : +82-53-422-4712
E-mail : sanghan1@knu.ac.kr

A Case Report of Fatal Vaginal and Anal Fisting

Ji Eun Kim¹, Young Ran Cho¹, Sang Han Lee²

¹Daegu Child Sexual Assault Response Team, Daegu, Korea

²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Fisting is an uncommon sexual activity, and death due to fisting is very rare. In the present report, we describe a case of a woman who died from fisting by her male partner. A 38-year-old woman went to a motel with a man after consuming alcohol, and there they kissed each other. As desired by woman, the man inserted his fingers into her vagina and anus, and later inserted his fist and forearm into her vagina and anus. After 20–30 minutes of fisting, the woman became unconscious and died. The autopsy confirmed the presence of perineal and vaginal lacerations with massive internal pelvic soft tissue injury with uterine artery rupture. A partial tear was noted at the rectosigmoid junction. The cause of death was hypovolemic shock due to uterine artery rupture. Following court trials, the assailant was sentenced to 4 years of imprisonment for the felony of inflicting bodily injury resulting in death.

Key Words : Sexual activity, Autopsy, Death, Fisting, Uterine artery

서 론

인간은 생식 외에도 쾌락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며, 다양한 성적행위를 시도한다. 성적행위에는 성교체위, 구강성교, 성적환상, 자위행위, 항문성교 등이 있으며, 소수 사람들이 행하는 성적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적이거나 변태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¹⁾ 피스팅(Fisting)이란 흔하지 않는 성적행위로 유사성행위이며, 질이나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이다.²⁾ 일반적으로 피스팅에 대해 단어 그대로 주먹을 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손 부위를 넣는 것을 통틀어 의미한다. 손목으로부터 한층 더 위까지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팔꿈치까지 팔을 넣거나 2개의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피스팅은 질, 회음부, 항문 및 결장의 열창이나 천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손상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

다.³⁻⁶⁾ 또한 드물게는 질에 통과하는 공기로 인해 공기색전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임신기간에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⁷⁾ 본 증례는 성적행위의 일종인 남자의 피스팅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매우 드문 사례로 재판결과와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피해자는 38세의 출산 경험이 있는 이혼 여성으로, 퇴근 후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가해자(38세)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오다가 식당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한차례 넘어졌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아 모텔로 가게 되었다. 모텔 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약 20~30분 후에 불을 켜니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고, 가해자의 손과 몸, 피해자

의 외음부와 몸, 이불, 방바닥 등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할 모텔주인의 신고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부검 등의 사후검사가 시행되었다.

1. 부검

부검은 사망 당일 시행되었다. 외음부의 외부에는 질 왼쪽 가쪽과 질의 경계를 넘어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길이 7~8 cm, 깊이 5~6 cm), 질 내 열창(길이 4~5 cm, 깊이 1.5 cm) 등이 있었다. 내부에는 오른쪽, 위쪽으로 질 점막과 근육 등의 광범위한 열창, 항문에서 왼쪽, 상부 점막과 근육 등의 광범위한 열창이 있었다. 자궁의 왼쪽 후면으로 연결된 자궁동맥이 파열되어 있었고(Fig. 1), 구불결장 이하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직장이 절단되어 있었다(Fig. 2). 복벽의 배꼽부위 위쪽으로 부분적인 피하출혈, 우하복부에 부분적인 조직출혈이 있었으며, 약 100 ml 가량의 혈액이 있었다. 후복막강 내에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고 복벽의 근육층과 대장에 부분적인 조직괴사가 있었다. 이외에도 오른쪽 대음순의 피하출혈과 부종, 양쪽 소음순 주위의 점막탈락과 부분적인 출혈이 있었다. 절단된 직장 일부는 모텔 방 안에서 발견되었다. 양쪽 넓적다리부위와 살굴부위 전면에는 가해자의 교흔이 식별되었다.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넘어져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마부위 오른쪽, 양쪽 마루부위, 미간 왼쪽에 피하출혈이 있었고 인중부위 오른쪽, 코부위 오른쪽 가쪽, 입술 오른쪽에 표피박탈이 있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형성된 복장뼈의 골절이 있었고, 오른쪽 흉강 내에는 약 30 ml 가량의 혈액이 있었다.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약물이나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궁동맥의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이었다.

2. 가해자 및 참고인 진술(수사결과)

가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는 직장동료이며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였다. 사건 당일 퇴근 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식당 영업이 끝나서 식당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넘어져 얼굴에서 피가 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서로 성적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가해자가 자신은 아내 외에는 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으로 해달라며 가해자의 손가락을 자신의 외음부에 직접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해 달라, 더 세게 더 세게.”라고 요구하여 가해자는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을 삽입하였고 동시에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라고 거부한 적은 없었고, 몸을 떠는 증상을 보였다. 약 20~30분이 흐른 뒤 신음을 내던 피해자가 반응이 없고 ‘이 정도면 되었겠지.’라는 생각에 불을 켜니 피해자의 외음부와 몸, 가해자 자신의 손과 몸에 피가 묻어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놀라서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가해자는 진술조사과정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참고인 조사는 가해자의 직장동료, 모텔 주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당일 가해자의 직장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와 직장동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 모텔 방에서 쉬고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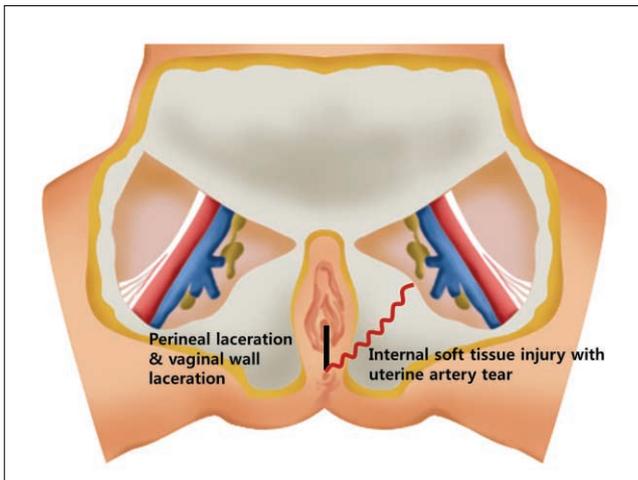


Fig. 1. External examination in scheme shows vertical 7~8 cm perineal laceration and 4~5 cm vaginal wall laceration. Internally, the uterine artery was ruptured at the posterior part of the uterus with surrounding soft tissue inj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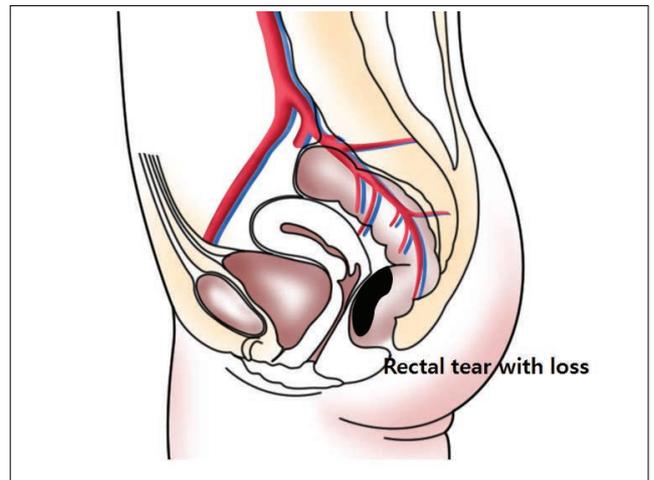


Fig. 2. The schematic sagittal view of the pelvic cavity shows rectal tear of the rectum below sigmoid colon.

다고 하였다. 잠시 후 모텔을 순찰하던 모텔주인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직장동료에게 알리고 119와 담당지구대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가해자의 직장동료와 모텔주인은 서로 한결같이 진술하였다.

3. 재판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남녀 사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행위의 정도를 훨씬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주먹을 집어넣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자궁 후면에 손이 닿을 정도로 팔꿈치까지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던 점, 그 과정에서 강한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혈흔이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로 감정되었으나, 피해자가 식당 앞 계단에서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갔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⁸⁾ 이후 상급심(2심 및 대법원)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다.

고 찰

본 증례는 성적행위의 일종인 남자의 피스팅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경우이다. 16~59세의 오스트레일리아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 중 5% 미만이 폰섹스, 변장,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 항문 혹은 질의 피스팅, 항문의 구강성교 등을 한다고 보고하였다.⁹⁾ 피스팅은 이성 간의 성적행위 혹은 자위행위에 사용되며 질의 피스팅은 다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항문의 피스팅은 주로 동성애의 성적행위에서 사용되며, 여성의 경우 드물게 발생한다.^{10, 11)}

피스팅으로 인해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Dawn (1989)은 16세 여자 청소년의 사례를 보고하였는데, 남자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던 중 남자가 질에 팔뚝까

지 손을 넣었고,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손상으로는 질 열창, 질 벽 뒤쪽에서 자궁경부까지 8 cm 열창, 방광과 직장에 좌상, 복강 내 75-100 ml의 혈액이 관찰되었는데, 사망원인은 질 열창으로 인한 출혈 및 속으로 판단하였고, 검시관은 이 증례를 살인으로 판단하였다.⁶⁾ Torre (1987)는 젊은 성인 여성이 남편의 항문 피스팅으로 인해 회음부와 직장의 열창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3일 후 사망한 사례를 보고하였다.⁵⁾

피스팅과 유사한 성적행위로는 이물질 삽입이 있다. 이물질 삽입은 여성의 자위행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외국에서는 이물질의 일종인 인공음경을 사용하는 여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¹⁾ 질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자위행위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종의 자기색정사로 볼 수 있다. 자기색정사는 혼자 성적 쾌감을 즐기다 죽음에 이르는 사고사를 의미하며, 남성에게 흔하고 여성에서 보고된 사례들은 흔하지 않다.¹²⁾ 자기색정사의 전형적인 방법은 질식사이며, 몇몇 사례에서는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감전, 비전형적인 질식사 방법 혹은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¹³⁾ Benard 등 (1990)은 당근을 이용한 자위행위로 질에 삽입한 당근이 자궁내피임장치를 자극하여 자궁내막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부위로 공기가 유입되어 공기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례를 보고하였다.¹⁴⁾

본 사례는 상급심 재판을 준비하던 변호사가 자문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려졌고, 재판결과 상해치사죄로 인정되었다. 질 내 피스팅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인 질 벽의 열창으로 인한 과다출혈, 그리고 항문 피스팅으로 인한 하부대장의 손상 및 주위 혈관 손상이 병합된 사례이다. 결국, 과도한 유사성행위로 인해 사망까지 초래한 극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 이해하기 어렵다. 가해자에게 성도착증이나 성적 콤플렉스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본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Lee KH. Human and sex. Seoul: World Science; 2000. p. 157-8, 161-2.
2. Herrman B. Trust: The Hand Book: A Guide to the Sensual and Spiritual Art of Handballing. San Francisco: Alamo Square Press; 1991. p. 46-7.
3. Cohen CE, Giles A, Nelson M. Sexual trauma associated with fisting and recreational drugs. Sex Transm Infect 2004;80:469-70.
4. Preuss J, Strehler M, Dettmeyer R, et al. Death after anal "fisting". Arch Kriminol 2008;221:28-35.
5. Torre C. Delayed death from "fisting". Am J Forensic Med Pathol 1987;8:91.

6. Fain DB, McCormick GM. Vaginal "fisting" as a cause of death. *Am J Forensic Med Pathol* 1989;10:73-5.
7. Kaiser RT. Air embolism death of a pregnant woman secondary to orogenital sex. *Acad Emerg Med* 1994;1:555-8.
8. Changwon district court, Tongyeong subdistrict court. 2011 gohap 28
9. Richters J, Grulich AE, de Visser RO, et al. Sex in Australia: autoerotic, esoteric and other sexual practices engaged in by a representative sample of adults. *Aust N Z J Public Health* 2003;27:180-90.
10. Shook LL, Whittle R, Rose EF. Rectal fist insertion. An unusual form of sexual behavior. *Am J Forensic Med Pathol* 1985;6:319-24.
11. Taormino T. The art of anal fisting. New York Village Voice. Available from <http://www.villagevoice.com/1999-10-26/columns/the-art-of-anal-fisting/>
12. Kand DY, Kang HW, Kwak JS, et al. A textbook of legal medicine. 1st ed. Seoul: Jungmunkag; 2007. p. 229.
13. Sauvageau A, Racette S. Autoerotic deaths in the literature from 1954 to 2004: a review. *J Forensic Sci* 2006;51:140-6.
14. Marc B, Chadly A, Durigon M. Fatal air embolism during female autoerotic practice. *Int J Legal Med* 1990;104:59-61.